

새 회장의 자질과 우리의 책임

The Competence of the New President and Our Responsibility

Column

을유(乙酉)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 한해 우리는 내외외환에 시달려 왔다. 대통령의 탄핵, 좌우대립, 경제파탄 등 건국 이후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신적 갈등과 경제적 파국이 심했던 것이 외환(外患)이라면, 회장의 판공비로 시작하여 임원선출 문제 등으로 근 1년여를 내홍으로 몸살을 앓다가 급기야 회장의 불신임과 감사 사임으로 이어져 초유의 대행체제를 가져온 것이 내우(內憂)였다. 참으로 어려운 이중고를 겪으며 우리는 인내로써 새해를 맞는다. 새해라고 하여 어제 뜨는 해와 오늘 뜨는 해가 다를 리 없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새해는 소중하다.

결코 밝지 않은 새해. 최대 과제는 유능한 회장의 선출

전반적으로 새해의 전망 또한 작년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전 국민, 전 업종의 불황은 민생을 외면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4대 개혁법에 허송세월한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다. 설상가상으로 주택가격을 잡기위한 부동산 정책은 그나마 실낱같은 목숨을 연명하던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는 동아줄이 되었다.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국민들의 소비지출 감소는 우리의 경제를 더욱 쇠락하게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럽기는 대통령이 신년 벽두에 '자기로 인한 트러블이 올해는 없을 것이며, 경제에 치중하겠다'고 말함으로써 과거 2년과는 다른 통치철학을 느끼게 하여 기쁨을 주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분배와 성장의 우선순위 등 많은 문제점들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런 사안들은 우리의 영역 밖의 일하기에 피동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올해 우리의 가장 큰 일은 회장을 선출하는 일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국가나 협회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일이다. 어떤 인물이나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회장선임이 중요한 것은 임기이다. 대통령은 5년이나 되기 때문에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으나 회장은 2년이기에 만회의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능한 일꾼을 찾을 수 있는가?

리더의 자질과 자신 없으면 입후보하지 말라

첫째, 입후보자의 자질 문제이다.

회원들은 공선사후(公先事後)의 공인정신, 언행일치의 신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특히 금전적으로 청렴한 사람, 진실에 바탕을 두고 조화, 화합,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강력한 리더십으로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이상적인 회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입후보 예정자들은 적어도 회원이 원하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 자질이 모자라고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포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액판공비를 생활비나 선거비용을 충당하는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나, 유능한 인재 대신 자신의 당선 공헌도에 따른 무리한 인사 등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입후보를 하지말기 바란다. 또한 일신의 명예를 위하여 적당히 회장직을 수행하려 한다면 그 또한 자격이 없는 자이다. 적어도 회원과 협회를 위하여 일신을 불사할 수 있는 자를 우리는 원하기 때문이다. 모든 요건이 완벽할 수 없기에 유능한 리더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올해의 회장은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며, 세계의, 국가의, 건축계의 그리고 우리 협회와 회원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읽고 대책을 강구하며 이를 실행해야하는 막중한 소임이 있는 만큼 이를 이룰 수 있는 자만이 자격이 있다.

20명의 대표인 대의원의 책무 막중. 지역, 학연, 지연 배제해야

둘째는 대의원의 역할이다.

회장의 선임권은 대의원에 있다. 대의원은 20명의 회원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학연, 지연 등을 떠나 대다수 회원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회원들에게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일반회원들은 회장 입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도 적고 투표권이 없으므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는 자신이 속한 시, 도회나 학교에 후보자가 이사 자리를 약속한다든가 하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한 후보에게 물표를 몰아주는 경우가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들어 40대 이하의 젊은 대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없어진 것 또한 아니다. 따라서 입후보자도 당선을 위한 이러한 추태는 시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대의원 또한 자신이 속한 쪽의 자리 하나 보다 전 회원과 협회를 위한 대국적 견지에서 회장을 택하여야 한다.

언론 역할 기대. 부도덕자 등 가려내야

셋째, 사무국과 회원과 신문의 역할이다.

지금까지 입후보자에 대한 공보물은 대의원에게만 유인물로 보내졌다. 금번에도 예산이나 규정상 이와 같을 것이다. 사무국은 이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모든 것과 선거에 대한 것을 상세히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라도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투표는 대의원이 하더라도 회원 모두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서울과 부산의 건축사 신문 등은 호외를 내서라도 후보자들에 대한 사항을, 공식적인 홍보물 외에 여러 사항들을 조사하여 가능한 한 후보자들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새해 벽두 57시간 만에 사퇴한 교육부총리의 일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다. 이제 공인이라면 그 누구도 도덕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과거의 부도덕 자가 금후에 도덕군자가 되는 것은 상전벽해보다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신문이 그렇게 함으로써 대의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게하는 것은, 협회의 공기로써 언론의 기본의무이기도 하다.

새 회장이 짊어질 과제들

새 회장에게는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 있다.

그 중에도 모든 회원들이 애타게 바라는 것은 생존권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 스스로가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의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돌파구 찾기가 필요하지만 협회로서도 주어진 것과 새로운 것 그리고 교육과 대관 관계를 통한 업무영역의 확장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유관 단체와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FKA의 틀 안에서 겨우 발족한 교육인증원과 앞으로 시급히 발족해야 할 등록원과 교육원에 있어서 우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타 단체보다 조금 더 물심으로 협력하여 보다 나은 건축계를 위해 헌신해야하며, 이로써 우리협회도 득이 되는 win win 전략으로 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협회 회관의 조속한 신축도 과제이다. 이의구 회장 시 확정된 사안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건축비의 상승 등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자 없이 넘어갔다. 더 이상 그럴 수는 없다. 이런 것에 비하면 정관의 개정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추진할 사안이다. 정관이 잘못되어 협회가 잘못된 적은 없다. 모든 것은 회장에 하기에 달렸다.

한 갑자 전 을유(乙酉)는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선사했다. 해방 이후 처음 맞는 을유 새해에는 국가는 물론 협회에도 유능한 회장이 선출되어 불신과 단절의 벽을 허물고 화합과 전진만이 있기를 기대한다. 卍